더 발전된 수업 시스템 갖추자

선화여중, 디지털교과서 활용한 연구학교 공개수업

선화여자중학교(교장 김동환)는 10월 28일 스마트 기반 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함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학교 공개 수업을 실시했다.

선화여자중학교는 그동안 ICT를 활용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감대 속에서 2015년 스마트 스쿨 선도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연계 로봇실험학교, 융합 인재교육 정책 추진학교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디지털교과서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돼 현재 1학년 사회, 과학 과목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전 학년 영어 과목에서 e-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전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동아리 등에서 스마트 기반 교육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공개수업은 1~6교시 동안 1학년 사회, 과학을 비롯한 전 교과 선생님들이 공개 수업을 했다.

공개수업 후 수업 참관 교사들과 함께 수업협의회를 통해 스마트 기반 수업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학년 사회교과에서는 '남북 분단 과정과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수업 주제로, 과학 교과에서는 '온도가 변하면 기체의 부피도 변해'라는 수업 주제를 가지고 디지털교과서뿐 아니라 위두랑, QR코드, youtube 등의 스마트요소를 적용 모둠 활동 및 활동 결과 공유, 동료 평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협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력, 탐구력, 소통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실시했다.

공개수업을 실시한 오모 교사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마트 기반 및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과 미래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타 학교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타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참관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해 더욱 발전된 수업 모델을 연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교장은 "제자를 사랑하는 교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교단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학교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용유중, 진로체험의 날 행사 가져

용유중학교(교장 이현주)는 10월 25일을 진로체험의 날로 정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에게 직업 및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견학, 체험 활동을 통해 본인의 미래 직업에 대한 구상 및 계획을 세워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오전 중에는 공항소방서로 이동하여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에 참가하였다. 소방관은 그야말로 지(智)·덕(德)·체(體)를 골고루 갖춰야 하는 직업이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봉사정신, 남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두꺼운 방화복과 무거운 소화 장비를 지닌 채로 움직일 수 있는 높은 체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소방관이 되기 위한 체력검정 과정과, 방화복 및 소화장비 착용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차에 올라타 보기도 하고, 종합상황실과 119 안전센터를 견학하기도 하였다.

3학년 지모 학생은 "방화복을 입고 소화전을 이용해 물을 뿌리는 순간 정말 내가 소방관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교육을 들을 때보다, 체험을 하면서 소방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해가 잘됐다. 소방관의 일이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소방관만큼 고생하는 직업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소방관만큼 보람 있는 직업도 없는 것 같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체력을 길러 꼭 훌륭한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꿈을 당당히 말했다.

오후에는 김인준 항공정비사와 남정렬 용유파출소장을 초청하여 희망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면담 및 인터뷰 활동을 통해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주 교장은 "이번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점임을 인식하고, 진로탐색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이에 더하여 이번 활동이 구체적인 진로목표 설정과 진로준비를 장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안용섭 기자 ays@

전주교대, 제24회 어린이 신문 경연대회 시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경희) 대학 언론사(주간 정한기)는 11월 3일 '제24회 어린이 신문 경연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경연대회의 으뜸상(1등)은 순창인계초등학교의 '배바위' 신문, 버금상(2등)은 김제검산초등학교의 '쏙쏙검산마중물 교육소식' 신문이 차지하였으며, 딸림상(3등)은 공동수상으로 순창 중앙초등학교와 김제 금산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심사내용 및 기준은 초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신문제작의 참여도, 신문의 구성및 내용, 신문 기능의 습득여부와 기사의 다양성 등으로 수상한 4학교 모두 신문에서 각 학교의 특색이 잘 반영되었고 톡톡튀는 창의성이 돋보였다고 평가되었다.

최경희 총장 직무대리는 "어린이 신문 경연대회가 계속 이어져서 학교 신문의 소중함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학교 신문이 초등학생들 간 의사소통의 한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대 대학 언론사는 아동의 창의성과 협동심 증진을 위해 매년 전라북도내 초등학교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교신문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신문의 모범이 되는 신문을 선정하고 시상하여 초등교육언론의 중심을 잡고 있다.

인천 청천중 2016 인천직업교육 행복박람회 관람

청천중학교(교장 한상옥)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1월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옥내전시장 제2홀에서 열리는 '2016 인천직업교육 행복박람회'를 관람했다.

행복박람회에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전시와 시연을 통해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청천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정보 및 학과 탐색을 한 번에 체험하고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청천중학교 학생들은 진로 선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관람을 마친 후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 할 수 있어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됐다"며 고등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용섭 기자 ays@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13개국 31곳서 출범

기존 부처별 강좌 브랜드 통합…뉴질랜드에서 첫 현판식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첫 발걸음을 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해외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한국어 교육 브랜드가 '세종학당'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지시간 5일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그 시작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13개국 31개소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좌는 11월 말까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새롭게 현판을 부착하고 공식적으로 세종학당으로 출발한다.

이는 지난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외교부가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부처별로 추진하던 해외 한국어교육은 외국인 수요 증가 등 해외 현장 상황을 반영해 '세종학당'을 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대표 기관으로 육성하고 더욱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됐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현판식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분관 차창순 총영사, 한국교육원 원유미 원장, 오클랜드 세종학당 최성길 학당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또한 한국교육원 및 세종학당 교직원과 수강생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국음식과 한국문화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은 교육원 신청이 있을 경우 세종학당 표준교재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등을 통해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이 브랜드 통합 이후 더욱 내실 있는 한국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 외에도 한국어 교원 재교육과 연수, 교재 개발, 스마트러닝 교육시스템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체 개최 등 '세부 실행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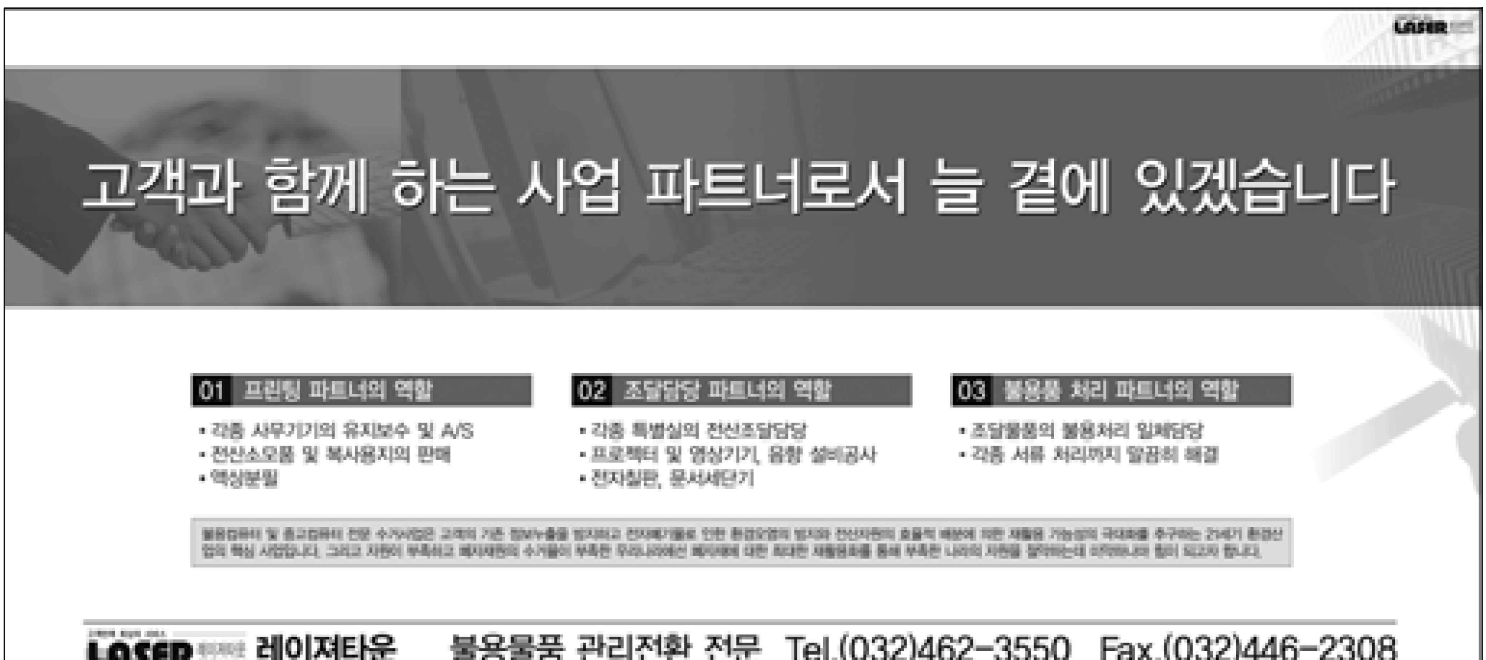
회장 안상섭 사장 한승균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우135-9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0(청담동)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팩스02-3444-0119 인천본부 032-429-1000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